2015 기회 아젠다:
정의 인식과 실현

제목: 가난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10대 계획

일자: 2015년 1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신의 "2015 기회 아젠다"의 8번째 사항, 즉 가난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10대 계획인 빈곤 퇴치 기회 아젠다를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뉴욕의 빈곤율은 15.9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21번째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주입니다.

미 재정정책연구소(Fiscal Policy Institute)에 의하면 뉴욕주의 가정빈곤율은 2012년 기준으로 12.2 퍼센트로, 2007년 10.3 퍼센트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Annie Casey Kids Count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뉴욕주 어린이의 23 퍼센트가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2012년, 뉴욕주민의 일인당 소득은 미국 기준 27,315 달러와 비교해 31,290 달러였고, 중앙 단일 가구 수입은 미국 기준 51,937 달러와 비교해 56,357 달러였습니다.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뉴욕주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카운티는 Bronx(30.7%), Kings(23.3%), St. Lawrence(21.4%), Franklin(22.2%), Sullivan (19.4%)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주택과 취업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저 임금 10.50 달러 인상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 당 7.25 달러이고 뉴욕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8.75 달러입니다. 2013년, Cuomo 주지사는 생활비에 맞춰 뉴욕주 최저임금을 2015년에 7.25 달러에서 9.00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2016년말까지 뉴욕주 최저임금을 다시 10.50 달러까지 올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가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지사는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11.50 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공정하고 더 효과적인 업무 관행을 장려하고, 근로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업 기동대를 실업률이 높은 상위 10곳으로 확대

Cuomo 주지사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일차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그는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참여 커뮤니티의 수를 확대하며 교육을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2014년에 조직된 실업 기동대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실업 기동대는 뉴욕주에서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면적 캠페인입니다. 2014년 5월과 9월 사이, 실업 기동대는 약 4,000명의 브롱스 주민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경력 활용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확대로 실업 기동대는 다음 카운티에서도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Bronx, Jefferson, Lewis, Kings, St. Lawrence, Oswego, Orleans, Montgomery, Franklin, Steuben.

실업률은 뉴욕주 전역에서 하락해 전체적으로 5.9 퍼센트를 보여 2008년 후반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해는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실업률이 한 해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의 많은 커뮤니티들은 아직도 높은 실업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시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을 두 배로 확대

2012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커뮤니티내 도심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실업률이 높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무직 및 취약한 환경의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2,500만 달러의 세금 공제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6,200만 달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 프로그램은 1,270곳의 뉴욕 기업에게 12,866명의 위험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주지사는 세금 공제 지원금을 2018년까지 4년 동안 연간 1,000만 달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해에 2,039개 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8,261명의 청년들을 고용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빈민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뉴욕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더욱 다지고 도시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Urban Youth Jobs Program) 참가자들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는 빈민 도시 내에 거주하는 위험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추가 자금 지원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중점을 두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과세 기간 동안 2,000만 달러로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취약 계층의 뉴욕 주민들을 위해 4억8,600만여 달러 투자

뉴욕의 300만 가구들은 재정적인 불안 상태에 놓여 있고,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4억8,600만여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16년에 5년 House NY 프로그램의 주요 자원으로 2억2,900만 달러, 2014-15년에 가용 자원에 3,200만 달러 증액;
- 향후 몇 년 간 다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J.P. Morgan Chase 결산 자금 중 2억5,700만 달러: 저렴한 주택 건설 및 재이용, 동네 재활성화, 커뮤니티 재생 활동 격려; 일반인, 노인 및 퇴역군인 주택 개량;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을 통해 저가 금융 및 자본 이용 제공.

2013년, Cuomo 주지사는 14,300채의 주택을 짓고 보존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5년 계획의 House NY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주지사가 1억 3천만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소 15년 동안 뉴욕주가 일으킨 주택 투자 중 최대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저렴한 주택을 위해 마련한 주지사의 연방 폭풍 복구 자금의 투자는 민간 투자를 시장으로 유인하여 모기지 비용을 낮추고 보다 저렴한 렌트 비용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노숙자 서비스를 위해 2억2,000만 달러 추가 투자

뉴욕의 노숙 인구는 80,590명으로 미 전역의 노숙 인구 중 14%를 차지합니다. 2014 HUD 노숙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노숙 인구입니다. 뉴욕주는 긴급 노숙인 쉼터, 노숙 예방 활동 및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현재 OTDA가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노숙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약 7억8,0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Cuomo 주지사는 뉴욕시 임대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뉴욕시에서 증가하는 노숙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해 향후 몇 년 동안 노숙 서비스에 추가로 2억2,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HUD 노숙 인구조사에 따르면 14,519개의 노숙 가정을 포함해 보호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이 현재 60,3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노숙 가정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2014년, 뉴욕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20% 이상 증가했고, 이 해에 20여개의 추가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NY/NY IV 주택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8,300만 달러 투자

뉴욕주는 J.P. Morgan Chase 결산 자금 1억8,300만 달러를 사용하여 추가 지원; 뉴욕시의 LINC 1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뉴욕시에서 HIV/AIDS로 진단을 받은 공공지원 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한선 책정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5,000채의 새로운 지원 주택을 마련하는 새로운 NY/NY IV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굶주림 퇴치 전담반에게 450만 달러 배정

현재, 300만여명의 뉴욕주민들이 식품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3년, Cuomo 주지사는 굶주림 퇴지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굶주림 문제를 종식시키고 뉴욕주 현지 식품 이용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전문가, 지지자 및 정부관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지사는 굶주림 퇴치 전담반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따라 2,600명의 긴급 식품 공급업자들이 매년 긴급 식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300만여명의 뉴욕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뉴욕주의 긴급 식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4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아동 및 성인 돌봄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과 성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연방 지원금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돕도록 250,000 달러를 투자하고 학교들이 현지에서 재배되는 몸에 좋은 식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뉴욕주 농장주들을 연결시키는 활동에 250,000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는 연방 자금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서비스와 서비스 공조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 HSITS(Human Services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구성으로 식품 불안정 상태에 놓인 뉴욕주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고 다른 중요한 주 지원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담반은 뉴욕주에서 연방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몇 가지 분야를 파악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긴급 보호 쉼터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상환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CACFP(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무료 임식을 제공하는 학교 또는 구에 일정 량의 보조금을 상환하는 CEP(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 저소득 커뮤니티에 식사를 제공하는 또 다른 연방 상환 프로그램인 Summer Food가 이에 해당합니다.

5,000만 달러의 비영리 인프라 자본 투자 프로그램 마련

비영리 부문은 뉴욕주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들을 포함해 많은 뉴욕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영리업체가 뉴욕주를 대신해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는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장기적인 비용 회피와 비용 절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 비영리 파트너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회성의 5,000만 달러 규모의 비영리 인프라 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대인 서비스의 품질, 효율성, 접근성, 이용 범위를 개선하는 자본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보조금도 제공할 것입니다.

우선권은 사회적 도움이 매우 필요한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주와 계약을 체결한 비영리 기관, 특히 소규모 비영리단체와 다른 자본 지원 기회가 없는 비영리단체에게 주어집니다."

MWBE 기회 30% 증가

주지사 취임 후, 뉴욕주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 이용율은 9%로 뉴욕주 계약의 8억 달러를 차지하였습니다. 2011년, 주지사는 그 목표를 20%로 상향조정하여 뉴욕주 계약의 16억 달러를 차지하였고, 2014년에는 이를 25% 초과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 계약의 20억 달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여 MWBE 목표를 30%로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는 뉴욕주 계약의 24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목표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MWBE와 계약하려는 주지사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를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종 및 여성 비즈니스 개발과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2011년 1월 과 2014년 1월 사이에 2,123개 기업을 추가하여 인증된 MWBE의 풀을 증대하고 지원 잔량을 제거하였습니다. 소기업과 MWBE 계약업체들은 교육, 신용 간소화, 계약이행보증 담보 지원의 결과 계약이행보증으로 4,000억 달러를 활용하였습니다.

대출 탕감 자립 프로그램(Get on Your Feet Loan Forgiveness Program)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자금 융자로 대학을 졸업하는 일은 졸업생들, 특히 저임금 졸업생들을 본인 자신과 가족 및 뉴욕 경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선택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이들은 고율의 이자를 떠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학생이 결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과 차량을 구입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경제 기회를 가지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지사는 Get on Your Feet Loan Forgiveness Program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을 졸업했으나 졸업 후 첫 2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생활하는 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의 Pay As You Earn(PAYE) 수입 기반 대출금 상환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